

§ 교회 목표 §

- 1. 천국시민 양성
- 2. 만민에게 전도
- 3. 빈약한 자 구제

"네가 믿으면 하나님의 영광을 보리라"
(요한복음 11장 40절)

순례자

Pilgrim

§ 2022년 표어 §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섬기는 교회"
(마 22:37-40)

十 행동 지침 十

- 1. 다시 말씀 앞에 (Reconfirm)
- 2. 다시 교회로 (Rebuild)
- 3. 모두 함께 기쁨으로 (Rejoice)

발행인 : 손달익 목사 발행처 : 대한예수교장로회 **서울교회** 서울시 강남구 삼성로 51길 7 전화:(02)558-1106 팩스 : (02) 558-2107 http: www.seoulchurch.or.kr



우리가 예수를 어떻게 하라

(요 11:45 - 53)

이종운 원로목사



예수님께서 죽은 나사로를 살리신 놀라운 기적 앞에서 사람들의 의견은 찬, 반 양론으로 나뉘어졌습니다.

“마리아에게 와서 예수께서 하신 일을 본 많은 유대인이 그를 믿었으나 그 중에 어떤 자는 바리새인들에게 가서 예수께서 하신 일을 알리니라”(요 11:45, 46).

예수님께서 죽었던 나사로를 다시 살리신 일을 본 많은 유대인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이것은 예수님의 인격을 보고 믿은 것이 아니라 죽었던 사람이 다시 살아나는 표적을 보고 믿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유대인은 표적을 구하고”(고전 1:22)라고 기록하였습니다.

살아난 나사로를 본 유대인들은 자신들이 목격한 바를 입으로 증거함으로써 믿음을 갖게 되었습니다. 입으로 증거함으로써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믿음을 확인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기적을 함께 목격한 유대인들 가운데는 바리새인들에게 가서 예수님께서 하신 일을 고한 사람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대제사장들과 바리새인들이 공회를 소집하였습니다.

1. 잘못 소집된 공회

본문에 기록되어 있는 공회는 대제사장들과 기타 종교 지도자 72명이 모이는 유대인 최고의 종교회의였습니다. 공회는 하나님을 위한 회의요, 하나님의 교회를 위한 일을 의논해야 하는 모임입니다. 그런데 대제사장들과 바리새인들은 이 공회에서 예수님께서 죽었던 나사로를 살리신 사건으로 인해서 예수님을 죽이려는 음모를 꾸몄습니다.

“이 사람이 많은 표적을 행하니 우리가 어떻게 하겠느냐”(47절). 대제사장들과 바리새인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는 무리들이 많아져서 그들이 로마를 대적한다는 소문이 나게 되는 것을 두려워하였던 것입니다. 이때 공회 참가자 중의 한 사람인 대제사장 가야바가 일어나서 “너희가 아무 것도 알지 못하는도다 한 사람이 백성을 위하여 죽어서 온 민족이 망하지 않게 되는 것이 너희에게 유익한 줄을 생각하지 아니하는도다”(49-50절)라고 예수님을 죽이자는 제안을 하였습니다. 가야바는 무의식 중에 하나님의 뜻을 예언하였습니다. 이것이 하나님께서 자신의 뜻을 펴시고 역사하시는 방법입니다.

2. 세 부류의 사람

본문에는 세 부류의 사람이 나옵니다. 그 하나는 예수 그리스도가 살든지 죽든지 무슨 상관도 없느냐고 생각하는 사람들과, 또 하나는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철저히 대적하는 사람들이며, 나머지 하나는 예수님을 믿고 따라가는 사람들입니다.

우리들은 어떤 자리에 서 있습니까? 우리들이 진정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는 사람이라

면 유대인들과 같은 무모한 행동을 해서는 안 될 것입니다.

3. 대리적 죽음

“한 사람이 백성을 위하여 죽어서 온 민족이 망하지 않게 되는 것이 너희에게 유익한 줄을 생각하지 아니하는도다”(요 11:50).

이 말씀은 예수 그리스도의 대리적 죽음을 예언한 것입니다. 대제사장 가야바가 자신도 알지 못하는 사이에 말한 위대한 대리적 죽음의 진리가 여기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죄의 값으로 영영 죽을 수밖에 없는 인간들을 죽음의 자리에서 건져 내시기 위하여 십자가에서 피 흘려 돌아가셨습니다. 아담이 하나님과의 언약을 어기고 범죄함으로써 아담의 후예들도 모두 죄의 자리에 빠지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 아래 있는 우리들은 그분의 승리하심으로 말미암아 사망의 권세를 깨뜨리고 승리자가 되었습니다.

4. 한정적 속죄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만민을 위해 십자가에서 돌아가셨습니다. 그러나 누구나를 위하여 돌아가신 것이 아니라 자기 백성을 위하여 돌아가신 것입니다. 이것을 한정적 속죄라고 합니다. 한정적 속죄란 우리들이 지은 죄의 일부만을 사해 준다는 의미가 아니라 한정된 사람들의 죄만을 용서하신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하나님의 구속의 역사는 은혜 중의 은혜입니다.

선지자 이사야는 “그는 곤욕과 심문을 당하고 끌려 갔으니 그 세대 중에 누가 생각하기를 그가 살아있는 자들의 땅에서 끊어짐은 마땅히 형벌받을 내 백성의 허물 때문이라 하였으리요”(사 53:8)라고 예언하였고, 예수님은 “나는 선한 목자라 선한 목자는 양들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거니와”(요 10:11)라고 했으며 사도 바울도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사랑하시고 그 교회를 위하여 자신을 주심 같이 하라”(엡 5:25)고 말씀했습니다.

“흠어진 하나님의 자녀들”(52절)이란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고백하는 사람들을 가리키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들이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고 있습니까? 하나님을 나의 아버지라고 부른다면 우리 모두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한 형제가 되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하나님을 나의 아버지라고 부른다는 것은 하나님을 생명의 원천자요, 창조주요, 보호자요, 인도자로 받아들이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자기 백성을 위하여 십자가에서 돌아가신 예수 그리스도께 감사하며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되시기를 소원합니다.

대림절 묵상

“오늘 다윗의 동네에 너희를 위하여 구주가 나셨으니
곧 그리스도 주시니라.”
(누가복음 2:11)



예수님께서 갓난 아기의 모습으로 이 땅에 오셔서 죄인을 구원하시고, 사람의 모범을 보이시고, 위로를 전하셨던 것처럼, 그리스도의 모범을 따라 사랑과 위로를 실천하게 하소서.

- 2022 서울교회 대림절 묵상집 중 -

열린프로그램 확대

교육위원회(위원장 : 김혜언 장로)는 글로벌 환경으로의 변화에 맞는 교회 문화의 올바른 문화 나눔의 정착과 말씀에 기반한 찬양 문화를 형성하고 하나님과 교회 중심의 리더 양성을 고취하고자 기존의 교회 열린프로그램을 확대 운영한다.

자세한 내용은 다음과 같다.

- ① 대상 : 서울교회 성도, 교회학교 학생들
- ② 클래스 구성 및 강사 : 서울교회에 출석 세례 교인 중 문화 나눔을 기대하는 전문가

- ③ 클래스 운영
 - 클래스별, 3개월 단위로 10주 Course 자율 운영
 - 레벨 적용 필요시 초급, 중급, 상급으로 구분
 - 수강인원은 5-10명 이내로 제한 (최소 수강인원 미구성 시 폐강)
 - 운영비 : 각 클래스당 월 15,000원 (학기당 45,000/인, 교회 45,000/인 지원)

구분	요일	시간	과정	장소	강사
기타	주일	13:40	10주	505호	박민서 집사
		14:20	10주		
클래식기타 합주	주일	12:40	10주	609호	장윤식 집사
통기타	토	10:00	10주	505호	김상윤 선생
베이스기타	토	11:30	10주	505호	
드럼(리더반)	금	13:00	10주	101호	윤주일 집사
드럼(일반)	토	13:00	10주	101호	윤주일 집사, 한도연 선생
조이스워십반	토	10:00	10주	701호	김보영 선생

2023년을 섬길 일꾼들

지난주 우리 교회는 2023년을 이끌 일꾼들을 임명하였다.

스데반회 회장으로는 홍창훈 집사, 부회장은 임우택 집사를 각각 임명하였다. 권사회 회

장으로는 장호림 권사, 부회장으로는 최종희 권사를 각각 임명하였다.

또한 청년부 회장은 소준 성도를 회장으로, 부회장은 김재령 성도를 선출하였다.



홍창훈 집사



임우택 집사



장호림 권사



최종희 권사



소준 성도



김재령 성도

2022년 12월 세례식 거행

서울교회 당회 주관으로 지난 12월 11일 주일 찬양예배 시 2022년 마지막 세례식이 있었다. 서울교회는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라(마 28:18-20)는 예수님의 명령에 따라 매해 짝수 달(격월) 셋째 주 주일 저녁 찬양예배 시 세례식을 거행하고 있다.

교구와 다락방 및 각 교회학교에서는 세례

대상자를 적극 추천하여 주시기 바란다. 사전교육 및 신청 절차는 새가족 위원회 세례교육부에서 담당하고 있다. 금번 세례·입교·유아 세례자는 다음과 같다.

- 세례 : 오행미 고동현 박건영 조윤석 계 4명
- 입교자 : 김성주 한예준 계 2명
- 유아세례자 : 안다운 안다인 이시온 계 3명
- 총 9명

온라인 헌금을 위한 봉헌 계좌

서울교회 통장 계좌는 다음과 같다.

- * 신한은행 대치동 지점
- 100-034-868968
- (대한예장 서울교회)

광고

신속한 교회 행정을 위하여 이사 등 주소 변경 시는 즉시 사무국이나 교구목사에게 알려주시기 바란다.



연말연시 일정표

12. 18(주)

- 교사 총회
- 찬양예배 시 : 성탄축하 특별행사 (교육부 전체)

12. 25(주)

1. 성탄새벽예배 / 호산나찬양대(새벽 5시)
2. 성탄축하예배 : 주일 1, 2, 3부 예배
3. 각 부 교회학교 졸업
4. 향존직 은퇴
5. 장한 어머니상(다자녀, 개근자녀)시상
6. 성경통독 시상
7. 예·결산 특별제직회(찬양예배 후)

12. 31(토)

- 송년음악회(10시 30분)
- 송구영신예배(11시 30분 - 1시)

1. 1(주)

- 신년주일 성찬예배 : 주일 1, 2, 3부 예배
- 예결산 공동의회(찬양예배 후)

2022 스테반회 회장 섬김을 마치며

이 모든 것이 주님의 은혜임을 기억하고 감사드립니다



백도환 집사
(2022 스테반회 회장)

지난 1년은 길지 않은 시간이었지만 주님께 의지할 때 늘 함께 하시는 주님이심을 깨닫게 되는 소중한 시간이었습니다. 이미 5년간 분란으로 인한 비상시국에 이어 비대면 예배가 계속되어 스테반회도 그동안의 행사 실적이나 자료가 많이 누락되고 미비되어 있었습니다. 기존의 임원들도 교회와 회사에서 중책을 맡게 되는 등 타임라인이 불확실한 상황에서 함께 호흡할 임직원들을 급히 선정하고 올해의 계획을 세웠습니다.

상반기에는 교회 내 모임 및 행사 위주로 모이고, 하반기 규제 완화 시에는 전통적인 행사와 야외행사를 갖고자 했습니다. 연초 월례회는 임직원 위주로 주일에 모임 수밖에 없었고 시간과 장소도 매번 변경되었으나, 코로나가 완화될 시점을 4-5월로 가정하고 그 이후의 정상적인 행사를 대비하였습니다. 주님의 은혜로 저희가 계획한 5월부터는 규제가 완화되어 식당봉사도 정상화되고 봄철 주차장 청소를 실시하였고 6월에는 연초부터 계획한 체육대회를 아가페타운에서 개최하였습니다. 담임목사님을 비롯한 당회원 뿐만 아니라 회원들 가족까지 100여 명의 많은 분들이 참석하여 주셔서 아름다운 환경 속에서 즐거움을 만끽하며 행사를 마칠 수 있어 주님께 감사를 드렸습니다.

이후 하반기에는 거리두기 시책이 완화되면서 이전과 같이 토요일 오후 3시 웨민홀에서 월례회를 진행하였으며 7, 8월에는 목사님을 모시고 신앙강좌 특강을 가졌고, 9, 10월에는 남선교회와 연합하여 전도사님의 전도 특강과 회원 가족들이 동참한 가운데 우중 탄천 길 걷기 야외에 배 행사를 실시하였습니다.

특히 하반기에는 회원들 70% 이상의 회비 및 찬조금 납부에 힘입어 타부서와 협력하고 지원하는 등 행사와 봉

사의 영역을 확대하여 권사회, 소망부 뿐만 아니라 바자회, 사명자대회, 성경암송대회 등에도 물심양면으로 적극 지원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11월에는 당회 소속기관으로서 안식년제 및 정관 개정 검토에 참여하였고, 재신임제도 컨센서스 및 당회에 건의할 발제 내용에 대한 자체 토론회를 열어 교회 발전을 위한 의견을 개진하였습니다.

돌이켜 보건대, 스테반회에 신입대원들과 많은 일꾼을 더하여 주시고 경제적으로 어려운 가운데에서도 예산을 뛰어넘는 물질을 허락하여 주셔서 스테반회 자체 행사뿐만 아니라, 교회의 각부서와 사업에 스테반회를 필요로 하는 곳에 시간과 물질로 헌신하게 하셨습니다. 무엇보다도 주님께서 역사하여 주심으로 말미암아 코로나와 질병으로부터 우리를 치유하여 주시고, 회원님들 자녀의 결혼식 등 기쁜 일을 서로 축하하게 하시고, 또한 안수집사님들과 그 가족들이 슬픈 일과, 감내하기 힘든 어려운 고난 가운데 있을 때도 스테반회 모든 회원들이 함께 기도하고 위로하여 줌으로써 주님이 함께 하여 주시고 치유하여 주셨습니다.

1년간 미려한 저와 같이 수고해 주신 임원분들과 여러 부서에서 시간을 내어 봉사하여 주신 선후배 부장, 차장, 부원님들과 대청소, 식당 및 주차 관리 등 곳은 일마다 솔선수범 앞장서 주신 목사님과 장로님, 1년 동안 경건회를 이끌고 지도하여 주신 장석남 목사님께도 감사를 드립니다. 이 모든 것이 주님의 은혜임을 기억하고 감사드리며, 2023년을 담당할 신입회장님과 임원들에게도 주님께서 지혜와 명철로 지켜주시사 도움이 필요한 곳에 많은 회원들과 믿음과 즐거움으로 참여하게 하시고 1년간 주님이 동행하시는 특은을 누리시기를 기도합니다.

2022 권사회 회장 섬김을 마치며

권사회의 역할을 부족함 없이 완성케 하신 주님께 감사드립니다



박미혜 권사
(2022 권사회 회장)

2022년 권사회 회장으로서의 한 해는 오로지 앞만 보고 정신없이 달려갔던 모든 일들에 감사하고 또 감사하는 축복의 날들이었습니다. “인자 앞에 서도록 항상 기도하며 깨어 있으라” 하신 주님의 말씀처럼 내내 깨어 한 해를 보냈습니다. 길지도 짧지도 않은 한 해를 주님께서는 어찌 이렇게 온전히 깨어 있게 하셨는지, 사악한 무리들과의 오랜 분쟁으로 인하여 흐트러진 서울교회의 회복을 위해 끊임없이 무릎으로 기도하고 또 기도하며 모두가 하나가 되기를 소원하였습니다.

무엇부터 시작하여야 할지 모르는 막막함 속에서 환한 빛을 보이시며 앞서가시던 주님을 따라 그 길을 놓칠새라 열심히 열심히 걸었습니다.

하루도 빠짐없이 숨 가쁘게 움직이는 권사회에 짝 짜여진 일정들이 행여 잠깐의 방심과 나태함으로 권사회원들의 무관심과 균열로 이어지지 않을까 하는 염려 속에 거듭거듭 기도하고 확인하며 항상 깨어 있기를 소원하였습니다.

2022년 권사회는 교회와 성도들을 위하여 할 일이 참 많았습니다. 다른 해보다 유독 많았던 애경사와 코로나19로 인하여 닫혔던 식당을 다시 열게 되어 매 주일마다 점

심 배식봉사와 각종 행사에 많은 역할이 주어졌습니다.

항상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는 하나님께서는 모든 권사회 회원들이 빠짐없이 모두 하나가 되게 하였고, 단 한 번의 사양도 없이 충실히 직분을 감당하여 주신 임직원 및 회원 한 분 한 분의 놀라운 단합과 응집력은 그 어느 때보다 뜨거운 감동이었습니다. 교회의 각 기관과 이어지는 모든 행사와 봉사 때마다 열과 성의를 다하여 헌신하는 우리 권사님들의 모습은 분명 하나님을 호위하는 천사들과 같았습니다.

그때 그때 주어지는 권사회의 역할을 부족함 없이 완성케 하여 주신 주님의 은혜에 감사드립니다. 그와 더불어 올 한 해 부흥의 원년이 되도록 탐과 열정을 보여주신 권사회 임직원과 회원 권사님들의 헌신에도 깊은 감사의 기도를 드립니다.

이제 새로 출발하는 2023년도 권사회가 계속하여 발전되고 성장하여지는 우리 서울교회에 다시금 큰 역할과 밑거름이 될 것을 기대하고 확신하며 내내 이들을 위해 기도할 것입니다.

함께 하여 주셨던 권사회 여러분 감사합니다. 사랑합니다!

3부 예배

새로운 시작

하나님께서 세상에서 구별하여 부르신 교회 공동체가 하나님께 드릴 수 있는 최고의 행위는 예배이다. 하나님께 드리는 예배는 성도에게 가장 중요하고(the most momentous), 가장 긴급하며(the most urgent), 가장 영광스러운(the most glorious) 것이다. 그러므로 예배란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이 주신 창조의 은혜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주신 구원의 은혜를 깨닫고 감격하여 드리는 하나님의 백성들의 응답행위인 것이다. 이것이 우리가 반드시 붙들고 있어야 할 예배의 본질이다.

이 예배의 본질을 담아낼 수 있는 예배의 형식은 역동적이어야 한다. '구원의 감격, 감사의 축제, 미래에 대한 강렬한 소망'이 들어 있는 역동적 예배의 형식을 놓치면 예배의 모든 것을 잃는 것과 같다. 하비콕스(Harvey Cox)는 역동성을 잃은 예배의 위험성을 이렇게 경고한다. '예배에서 축제성이 상실된 다음부터 하나님의 죽음의 신학이 나왔다.'

시대와 문화가 급변하는 가운데도 기성세대는 전통예배가 익숙하고 이를 통해 충분히 은혜를 받으며 신앙생활을 하고 있다. 반면, 젊은 세대는 전통예배의 형식과 음악장르가 이질적이고 견디기 힘들어 교회에 나오는데 어려움을 토로하고 있다. 이에 따라 1970-80년대부터 전통예배나 현대적 예배냐에 대한

많은 고민이 이어졌고, 최근 전통예배와 현대적 예배의 장점을 담아 예배의 본질과 역동성을 모두 붙잡으려는 통합적(blended) 예배가 시도되고 있다. 전통예배처럼 예배 인도자가 있지만, 예배 순서가 좀 더 간소화 되고 예배곡의 장르와 악기가 다양하다. 어른들이 경건성과 깊은 영성을 느끼는 찬송가도 부르고, 젊은이들의 영성을 표현하는 경배송도 부르고, 찬양대도 있고, 찬양팀도 있다. 이러한 요소들이 잘 조화되어 다양한 세대의 문화와 감수성을 아우르며 예배의 본질과 역동성을 담아내고 있다. 이러한 노력은 복음화율이 너무 낮아 '신 미전도종족'이라 불리는 젊은 세대를 향한 치열한 선교적 노력의 일환이기도 하다.

우리 서울교회는 깊은 경건성과 우아한 예전이 있는 전통예배로 유명하다. 2023년에는 1부, 2부 예배를 더욱 경건하고 은혜로운 전통예배로 드리는 한편, 3부 예배는 다음 세대를 향한 선교적 열정으로 젊은이 세대를 중심에 세우고 할아버지 할머니와 부모 세대가 함께 어우러져 드리는 통합적 예배(blended worship)로 드리고자 열심히 준비하고 있다. 많은 관심과 기도를 부탁드립니다.

호산나대학 '월드 2인극 페스티벌' 시민 참가작 대상 영예

호산나대학(연극 치료 공연제작 프로젝트팀)은 <물속에 갇힌 엘리스> 공연으로 지난 11월 26일(토) 서울 대학로 민송아트홀 2관에서 열린 '월드 2인극 페스티벌' 시민 참가작 부문에서 대상의 영예를 안았다.

인간과 예술에 대한 지속적인 고찰을 통한 우수 공연 레퍼토리 발굴로 2000년 제1회 개최 이후 21년간 순수전문예술축제로서의 위상을 공고히 다져온 제22회 월드 2인극 페스티벌이 '2의 향연'이라는 주제로 10월 29일(토) 개막 후 지난 11월 27일(토)까지 대학로 시온아트홀, 예술공간 혜화, 민송아트홀 2관, 스튜디오 블루 등에서 한 달여간 펼쳐졌다.

2인극 페스티벌 조직위원회는 참가작품 공모를 통해 수많은 시민 참가작 중 총 9편을



선정하여 10월 29일(토)부터 11월 2일(수)까지 시온아트홀에서 관객들과 만나게 하였다. 대상을 수상한 호산나대학의 '물속에 갇힌 엘리스' 작품은 발달장애 학생들이 직접 출연하고 준비하였다. 22년째를 맞이하는 2인극 페스티벌에서 발달장애인이 입상을 한 것은 처음 있는 일이다.

해당 작품은 실제 주인공이 청소년기에 겪은 아픔과 상처로 인해 스스로 만든 감옥에

갇혀 세상과 단절되었던 경험을 이상한 세상에 떨어진 엘리스에 빚대어 만든 이야기로 관객들과 심사위원들에게 많은 감동을 선사했다. 실제로 심사위원 중 한 분은 "작품을 보는 내내 감동과 행복한 마음을 선사해 주어 감사하다. 연극에 대해 다시 생각해 보는 시간이었다." 라고 평하였다.

극중 엘리스 역을 맡은 장세이 학생은 '새로운 도전이었고, 부족함을 채워주신 이현용 지도교수님, 한층 더 성장하도록 응원해 준 학교 친구, 선·후배들에게도 정말 감사하다'라며 소감을 전했다.

올해 '월드 2인극 페스티벌'은 국내외 총 74개의 다양한 형태의 2인극이 펼쳐진 국내 민간 주최 최고의 연극 축제 중 하나다.



우리 교회는 '2022 서울교회 사랑의 바자' 수익금의 일부를 성인 남성 노숙인 시설인 복지센터 '은평의 마을'에 생수 2리터짜리 1만 병을 세 차레에 걸쳐 기증하기로 하고 지난 10월 27일(금) 1차로 3,300병을 보낸 바 있다. 이어서 지난 12월 13일(화), 생수 기증 2차분 생수 500ml짜리 22,500개를 기증하였다.



12월 11일 주일 찬양예배 시 2022년 마지막 세례식이 있었다. 세례 4명, 입교 2명, 유아세례 3명으로 하나님께는 영광이요 교회에는 자량이 되는 성도들이 되기 바란다.



12월 11일 주일 찬양예배 시 가브리엘찬양대가 헨델의 오라토리오 메시아를 성탄 감사찬양으로 영광 돌렸다.

호산나대학 · 구립서초요양원 산·학 업무협약(MOU) 체결



산·학 업무협약



구립서초요양원에 취업중인 졸업생과 이동귀 학장

12월 6일(화), 호산나대학(학장 이동귀)과 구립서초요양원(원장 나종선)은 발달장애인의 고용(서초구 장애인일자리사업)과 현장실습에 관한 산·학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이번 협약은 △현장실습 및 신규 채용 시 적응기간 동안 직무지도 실시 △안정적인 직장생활 유지를 위한 사후관리 실시 △신규 채용시 대학 추천 인력 우선 △학생 경험 증대를 위한 현장실습 진행 등에 관한 내용을 담고 있다.

나종선 원장은 “현재 본원에 호산나대학 졸업생 5명이 채용되어 근무하고 있다. 학생들이 항상 밝은 표정으로 어르신들을 대하는 것이 기특하다. 대학 측과 긴밀한 협조로 이들의 안정적인 직장 생활이 이루어지길 기대한다.”고 전했다.

이동귀 학장은 “요양원에 취업되어 있는 학생들의 표정이 밝고 직장 생활에 만족해 하는 것을 보니 기쁘다. 현장과 연계한 실무교육을 통해 준비된 인력이 될 수 있도록 교육에 최선을 다할 것이고 취업생들의 사후관리가 이루어지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호산나대학은 2006년 발달장애인 요양보호사 인력양성을 위해 노인케어학과를 개설하였고 현장과 학교가 함께 교육과정을 개발하여 학생들에게 현장 중심의 실무교육을 진행하고 있다. 다수의 졸업생들이 서울·경기지역 대형병원, 요양원에 채용되어 근무하고 있다. 10년 이상 장기근속하고 있거나 병원당 3-5명 졸업생들이 함께 근무하는 경우가 다수 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교회 청년들 중, 군에서 복무 중이거나 입대 예정인 청년과 대상 청년의 가족을 비전2030 도고팀에 알려주기 바란다.

군대에 있는 동안 좋은 상관과 동료들을 만나고 저들의 신앙과 안전을 위해 비전2030 도고팀은 뜨겁게 기도하고 있다.

- 비전2030 도고팀장 고선옥 권사
010-3344-6400

- 기도 대상자들

김준현 권동영 김종훈 김재용 김요한 이상민
한지원 문영훈 이준우 정건 경건웅 이강현
최윤학 이진우 유동연 허성강
안중호 소위 백승규 중위 황수지 소위
안지훈 중위 이연희 대위 이예희 하사
문창희 중사 김정균 소령

동 정

- 식사 제공: 교회 제공

서울 주간기도

- 주님 이름의 영광을 위하여 -

1. 대림절 넷째 주간에 그리스도를 더 알고, 더 닮아가는 신앙의 성숙이 일어나게 하소서.
2. 낮고 천한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을 경배한 동방의 박사들과 들판의 목자들처럼 주님을 경배하고 주님께 순종하는 서울교회 되게 하소서.
3. 코로나 팬데믹 시대를 빨리 벗어나게 도우시고, 우크라이나에 평화가, 한반도에 복음화된 통일이 이루어지게 하소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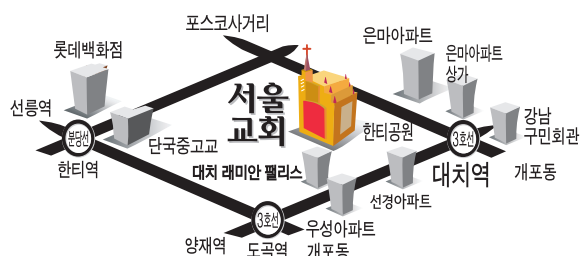
전교인 성경읽기표

교구(부서):		이름:			
일 자	요일	1년 1독	확인	1년 2독	확인
12월19일	월	요일 1-5		히 1-9	
12월20일	화	요이, 요삼, 유		히 10-13, 약 1-5	
12월21일	수	계 1-6		벤전 1-5, 벧후 1-3	
12월22일	목	계 7-12		요일 1-5, 요이, 요삼, 유	
12월23일	금	계 13-17		계 1-10	
12월24일	토	계 18-22		계 11-22	

■ 예배 및 집회

구 분	시 간	장 소
주 일 예 배	I 부 예 배	오전 9시
	II 부 예 배	오전 11시
	III 부 예 배	오후 2시
	찬 양 예 배	오후 4시 30분
수 요 예 배	I 부 예 배	오전 11시
	II 부 예 배	오후 7시
새 벽 기 도 회	오전 5시 30분	웨스트minster 홀
금 요 기 도 회	오후 8시	웨스트minster 홀

■ 교회 오시는 길



■ 서울교회QR코드

